**사회복지지출 현황 분석**

통계청의 공개자료를 활용해 사회복지 지출 현황분석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특히, 우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많이 이용할 것이라고 예상되는 사용자의 특성상 이들은 현재 직업을 가진 직장인들 보단, ‘근로능력이 없거나 적극적으로 사회활동을 하지 않는 부류’에 다수 속하기 때문에,

이 보고서의 작성 목적은 무직자에 대한 복지 측면에서 국가가 지출하고 있는 금액의 추세에 대한 보고이다.

텍스트, 도표, 그래프, 라인이(가) 표시된 사진

자동 생성된 설명

2000년 ~ 2020년까지의 통계자료를 그래프로 시각화 하였다.

근로무능력관련 급여(근로능력이 없는 기초소득자에 대한 급여 지출), 적극적 노동시장 프로그램(구인,구직 취업알선 프로그램, 직업훈련 프로그램 등)에 대한 비용, 실업에 대한 복지비용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보고서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출분야는 적극적 노동시장 프로그램이다.

단기적 기본소득에 불과한 ‘근로무능력 수급자들과 실업에 대한 직접적인 지급수당’ 지출을 제외하고,

국가는 직업훈련 등 노동시장을 원활히 하고 그 규모를 늘리는 데에 우상향으로 꾸준한 지출을 하고 있다.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자료로는 2020년의 적극적노동시장프로그램에 대한 지출 금액이 7조3천억 정도로 이 분야는 직접적인 수당을 지급하는 분야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상당히 많은 지출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우리 서비스의 최종 END POINT인 취직이라는 퀘스트를 사용자(노동시장에 소속되어 있지 않았던)가 달성함으로, 정부가 꾸준히 투자하고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인 ‘노동시장 규모 확대’에 사용자가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